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휩뜨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휩뜨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휩뜨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휩뜨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눈을 휘둥그렇게 하여 치뜨다.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휩쓰다	○	○
휩뜨다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눈을 휘둥그렇게 하여 치뜨다.

①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 수록 용례

5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힙뜨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눈을 휘둥그렇게 하여 치뜨다.



힙뜨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힙뜨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힙쓰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
힙뜨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
힙쓰- 문헌 수록 표기	—	—	—	—	—	● →
힙뜨-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힙쓰다
20세기
- 힙뜨다

↳ 힉뜨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힉뜨다’의 옛말인 ‘힉쓰다’는 20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힉쓰-’는 ‘힉-’과 감았던 눈을 벌리다를 뜻하는 ‘쓰-’가 결합한 것이다. 뜨다는 15세기부터 ‘뜨다’로 나타나 18세기부터 ‘쓰다’로 나타난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힉-’은 ‘힉쓸다’, ‘힉싸다’에도 나타나는데 ‘쓸다’가 ‘쁠다’, ‘싸다’가 ‘빠다’이었으므로 ‘힉’의 ‘ㅂ’은 뒤 동사의 ‘ㅂ’이 반 영된 표기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힉뜨다’로 표기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힉뜨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힉쓰-, 힉뜨-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힉쓰-, 힉뜨-

출처 1927 동아일보 2월 10일 6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필수는 개씩지처럼 옹기종기 추녀를 붓치고 잇는 동네 가운데서 자기의집만이 네모번듯한 기와집임을 새삼스리 발견한 듯이 놀나운 눈을 휩썼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9 동아일보 5월 2일 3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이것이 배급국 "아메리카"를 거쳐 다시 편집된 것인고로 미지근한 인상밖에 주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업스나 영화 자태로 보아서는 모든 것이 경이(驚異)의 눈을 휩쓰게 한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0 조선일보 6월 25일 4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의사 안경을 조금 쳐들고 길용을 휩써 본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동아일보 10월 27일 5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종택이는 정히에게로 한 거름 옹아 오며, "일부러 저녁이라두 드리라구 준비를 해뒀는데 ... 뭐 변변치는 못합니다만은..." 큰일이나 난다는 듯이 눈을 휩뜨고 말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동아일보 5월 12일 7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조흔 수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채상국이는 잠이 확 깼 것처럼 눈을 휩뜨고 일도를 바라보았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힉뜨다 관련 낱말

힉싸다, 힉쓸다

힉뜨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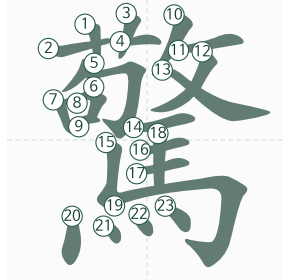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힉뜨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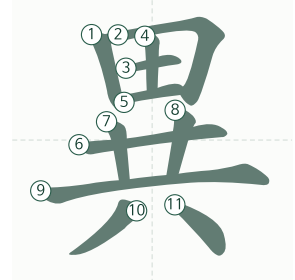
뜻·음 놀랄 경
총 23획 · 부수 馬



hanja.wordrow.kr/한자/驚/

異

뜻·음 다를 이
총 11획 · 부수 田



hanja.wordrow.kr/한자/異/